

2310 손채면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70년 동안 너무나 달라져버린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통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주변국들의 국제적인 협조가 조화롭게 맞물려질때 통일은 더 가까워 질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는 남북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를 더욱 장려해야 한다. '예술이나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예술과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을 마음으로 이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남과 북은 언어부터 생활, 생각하는 방식까지 너무다르고 서로 잘 안지 못한다.

7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많이 달라져버린 남북의 문화가 단시기에 통합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위해 남북이 협력하고 함께하여 서로를 미리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더 강해야 한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 취업박람회나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탈북민들에

대한 심리상담, 장여금 지원등 조금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의 현실은 누구보다 잘 아는

수있는 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을때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통일의 가교가 될수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다문화주의가

확산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다른 문화권에 속한 집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은

한 핏줄을 나눈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이방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를 너무 보고 단절된 채 지내왔기 때문에 큰 차이도 이질감은 있을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치이든 한번에 우리 기준에 맞추어 동화시켜야 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통일이 된 한국의 미래는 북한에 있는 자연 관광인 금강산, 백두산, 거마고원, 백마고지등을 구경하려고

내국인 외국인 등이 여행을 하는 일이 많아져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것이고,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가는길은

안배해주는 가이드가 생길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땅사이에 기차길이 이어지면서 유럽까지 육로로 갈수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 같고, 통일이되면 북한과 남한의 살아가던 환경의 맛, 풍습이 서로달라 새로 생기는

경험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남북통일과 평화기 댜시 우리에게 다소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수 있다.

70년이 가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분단국가로 사그매잡하고 있으니 남북통일이 어떻게 그리 쉽게 이루어질까...

하지만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남북통일을 실현할수있는 첫발걸음이라고

굳건히 믿는다.